



## 인라인 15000m 역주

제30회 전국남녀종별인라인롤러경기대회가 24일 전남 나주 롤러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15000m에 출전한 중등부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기성용, 조광래호 중심 잡는다

공·수 연결 새도 스트라이커 역할... 박주영 원톱

오늘 밤 8시 온두라스와 A매치... 세대교체 실험

세대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는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올해 첫 '안방 A매치'를 통해 오는 9월 시작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나설 정에 멤버 고르기에 나선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미의 복병' 온두라스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이 안방 무대에서 평가전을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12일 일본과의 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국이 온두라스와 맞붙은 것은 1994년 6월 미국 멤플리스에서 친선경기를 치른 게 유일하다. 당시 고정운, 황선홍, 김주성의 연속골로 3-0으로 이겼다.

이번 평가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나설 대표팀 구성의 마무리 작업에 있다.

조 감독은 대표팀 소집훈련에 앞서 "오는 6월 A매치를 치르려고 대표팀을 소집할 때는 선수를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예 멤버가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평가전을 통해 대표팀을 확정 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감독은 이번 온두라스 평가전을 앞두고 평소 23명 정도 소집하던 인원을 27명으로 늘려 유망주 점검에 공을 들였다. 박기동(광주), 김태환(서울), 조찬호(포항), 이상덕(대구)이 주요 테스트 대상이다.

'신인 발굴'이라는 목표와 함께 박지성이 이영표의 태극마크 반납에 따른 공백 메우기 역시 대표팀의 과제다.

조 감독은 24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온두라스전에 나설 베스트 11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조 감독은 원톱 공격수로 박주영(모나코)을 발탁하기로 했다. 왼쪽 측면에는 박지성이 지목한 후계자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을 먼저 출격시키기도 했다.

오른쪽 측면은 '부동의 윙어' 이청용(불

단)이 맡는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김정우(상주)에게는 애초 대표팀에서 맡아왔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떨어졌다. 김정우는 올해 공격수로 변신해 4골을 터트리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훈련 과정에서 수비수와의 1대1 능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정우는 이영래(수원)와 짙은 수비형 미드필더(더블 불란데)로 뛰게 된다. 대신 기성용(설톱)이 공격형 미드필더 겸 새도 스트라이커로서 '중원의 조율사'로 나선다. 포백(4-back)에도 변화를 줬다.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영표의 공백을 김영권(오미야)

에게 먼저 맡기고, 측면 공격수로 주로 활약해 온 조영철(니가타)을 오른쪽 풀백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중앙 수비수는 경험 많은 황재원(수원)-이정수(알 사드)의 끝으로 돌아갔고, 골키퍼는 정성룡(수원)이 맡는다.

후반에는 최근 무릎 부상에서 벗어난 지동원(전남)을 후반전에 투입해 원톱 스트라이커로 30여 분 동안 뛰게 할 작정이다. 지동원이 투입되면 박주영이 왼쪽 날개로 이동하고 이근호(경마 오사카)가 쳐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새로운 조합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 대 온두라스전 한국 예상 선발라인업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KBS2 생중계)



## 동신여고 정구부 전국대회 석권

동신여고(교장 정태환) 정구부가 지난 25일 제3회 전국체육대회 정구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동신여고가 24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제3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관광고를 3-1로 꺾고 우승을 안았다.

제19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한국 대표 파견선수 1차 선발전과 제14회 문경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수 파견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동신여고는

조 1위로 예선전을 통과한 뒤 8강과 4강에서

각각 안성여고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를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3복식2단식으로 치러진 결승에서 김지연-김이주 조가 4-1로 첫복식을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박은지가 단식에서 경북관광고 이선경에게 2-3으로 패했지만 최미란과 호흡을 맞춘 복식 두 번째 경기에서는 4-0으로 완승을 거뒀다.

김지연은 단식 두 번째 대결에서 경북관광고 김인정을 3-1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체육중, 전국태권도대회 종합 우승

전남체육중(교장 김인수)이 제6회 3·15 기념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남체육중은 24일 경남 고성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남중부 리그급의 고학재(3년), 페더급 장현서(2년)의 금빛 밭자리로 금메달 두 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고학재는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이창희 코치는 지도상을 받았다.

여중부에서는 핑크의 김소형(2년)과 라이트웰터급의 임금별(1년)이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또 영광중 김소희는 여중부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태권도의 힘을 과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838명, 고등부

1483명 등 총 2321명이 참가해 동계훈련을 통해 쌓은 기량을 발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일 대학축구 27일 정기전

제8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이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대학선발은 양형민 한국대학축구연맹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이상철 울산대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25일 오전 4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양팀 감독과 주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29전 14승7무8패로 앞서 있다. /연합뉴스

## 조광래호, 브라질 월드컵 야 3차 예선 진행

일본이어 2번 시드 배정

호주·북한·바레인도

통과한 15개 팀이 네 팀씩 5개 조로 나뉘오는 9월2일부터 흠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벌인다. 여기서 각 조의 1, 2위 등 10개국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고, 다시 다섯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1, 2위가 차지하는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룬다.

최종 예선 3위에 오르는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여기서 이긴 팀이 0.5장으로 배분된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본선 출전권을 노리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국가에 남아공 월드컵 때와 같은 4.5장의 본선 티켓을 배당했다.

앞서 열리는 1차 예선은 43개국 중 시드가 낮은 16개국이 8개 조로 나누고 여기서 이긴 8개국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최종 예선 3위에 오르는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여기서 이긴 팀이 0.5장으로 배분된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본선 출전권을 노리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국가에 남아공 월드컵 때와 같은 4.5장의 본선 티켓을 배당했다.

앞서 열리는 1차 예선은 43개국 중 시드가 낮은 16개국이 8개 조로 나누고 여기서 이긴 8개국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관 옆 건물) 또는 (지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정기이사 010-5879-0005

공장/토지

김태호전무이사 010-684-3886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 현대공인증개사

##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 창고)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

m²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 가능)

광산구 승학동, 니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

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4.8400평, 건축물을 있음, 매매가 13억원

▶ 주준지역(영업, 시숙, 일대용 등기건물) 신축축부지적합

회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

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

13천만원

▶ 김정기 99억4천

매매가격 12억원(협의후결정)

▶ 군산시 광복로 1번길 10-7570-7525

▶ 군산시 광복로 1번길 10-